골든글러브도 보이콧…이러다 주인없는 잔치 될판

KBO, 후보자 명단 발표는 했는데…

선수협 “KBO 주관 행사 모두 불참” 강경
시상식 전 이사회 개최 확정해 파행 막아야
무산시엔 스폰서 팔도와의 관계도 악영향

10구단 창단작업 표류를 이유로 선수협이 단체행동을 선언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골든글러브 시상식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골든글러브 시상식 장면. 스포츠동아DB

2012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과연 정상적으로 열리게 될까. 일단 후보들의 이름은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출장 경기수와 부문별 공격·수비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개인 타이틀 수상자 자동 포함)한 후보 3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이날 “10구단 창단을 위한 KBO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선수들은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비롯한 KBO 주관 행사에 모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8명으로 최다…이승엽 지명타자 후보

투수는 장원삼 오승환 탈보트(이상 삼성) 박희수(SK) 나이트(넥센) 류현진(한화) 프록터(두산)까지 7명이 후보로 포함됐다. 포수는 진갑용(삼성) 양의지(두산) 강민호(롯데)가 선정됐다. 1루수는 박병호(넥센) 김태균(한화) 박정권(SK) 박종윤(롯데) 등 4명. 2루수는 정근우(SK) 안치홍(KIA) 서건창(넥센)의 3파전이다. 3루수는 박석민(삼성) 최정(SK) 황재균(롯데) 정성훈(LG), 유격수는 김상수(삼성) 김선빈(KIA) 강정호(넥센) 이대수(한화)로 각각 추려졌다. 외야수 부문은 박한이(삼성) 김강민(SK) 김현수(두산) 손아섭(롯데) 이용규 김원섭 김주찬(이상 KIA) 이병규(9번) 박용택(이상 LG) 등 9명이 3자리를 놓고 겨룬다. 지명타자는 이승엽(삼성) 홍성흔(두산) 이진영(LG) 이호준(NC)이 경쟁한다.

구단별로는 한국시리즈 우승팀 삼성이 8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다. SK와 KIA는 5명씩의 후보를 배출했다.

●시상식 파행,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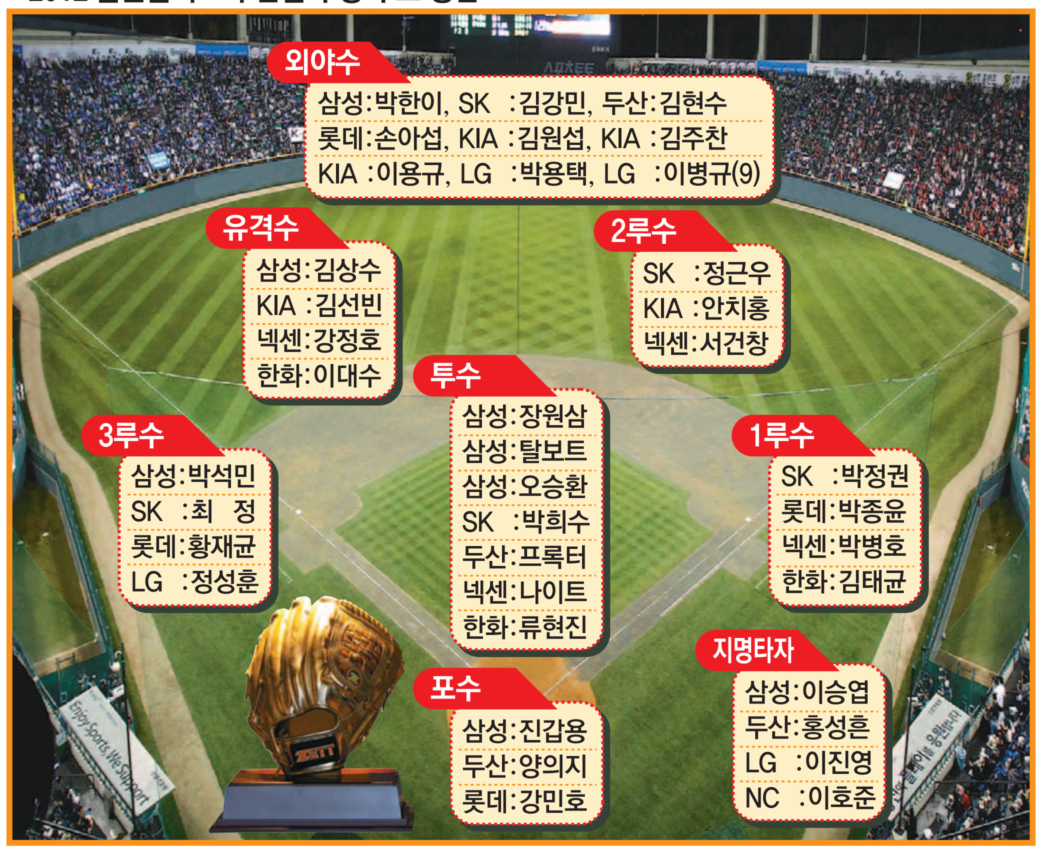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매년 12월 11일 열린다. 올해 KBO 이사회의 예정일 역시 같은 날이다. 따라서 선수협의 엄포가 현실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KBO로선 골든글러브 시상식 전에 정상적으로 이사회 개최일을 확정해 단체행동을 막는 게 필수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이진형 이사는 “일단 시상식 자체가 열릴 수 없다. 수상자들과 후보들이 참석할 수 없다면 무의미해진다”며 “골든글러브 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는 나올 것이다. 수상자를 발표만 하고 트로피와 부상 등의 전달 문제에 대해선 향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 시즌 타이틀 스폰서인 팔도와의 관계도 문제다. 팔도와의 계약 내용에 골든글러브 시상식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시상식이 무산되면 타이틀 스폰서가 강하게 항의할 수 있다. 또 당장 내년 시즌 타이틀 스폰서를 정하는 데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2012 골든글러브 구단별 수상 후보 명단



골든글러브 불참 제재 힘들어

비활동기간 행사참석 권고사항일뿐
전지훈련·WBC 불참은 파장 커질것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골든글러브 보이콧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10구단 창단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KBO 주관행사에 모두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6일 열릴 선수협 총회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전지훈련, 시범경기, 시즌 보이콧까지 단체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선수들이 불리하다. 선수들은 구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비활동기간(12~1월)에도 각 구단의 보류선수로 귀속된다. 비활동기간에도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런 의무가 명시돼 있어도 이는 권고사항이다. 가령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불참한다 해도 구체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지훈련과 WBC 불참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구단에서 보수를 받는 참가활동기간(2~11월)과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이다. 이는 ‘야구 활동을 안 하겠다’는 일종의 파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봉, 계약금에 걸쳐 선수와 구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즌 보이콧까지 가서 구단이 재정적 피해를 입으면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WBC는 국제경기다. 한국야구의 신인도가 걸려있는 행사이기에 보이콧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다.

이와 관련해 선수협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선수협이 KBO와 구단에 대해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즉, 골든글러브나 WBC처럼 KBO가 주최하는 행사를 불참해봤자 10구단을 반대하는 구단들은 별 내상을 입지 않으니 표적을 전지훈련 불참과 시즌 보이콧에 맞추는 편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봉중근·김광현도 부상…류중일호 ‘갈수록 태산’

선수들의 잇단 불참 선언에 선수협의 WBC 보이콧 선언까지…. 그래도 WBC 대표팀 사령탑인 삼성 류중일 감독은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선수협 WBC 보이콧까지…류 감독은 의연

내년 3월 펼쳐지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국가대표팀이 정식 출범도 전에 거듭 진통을 겪고 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류현진(한화)과 이적설에 휩싸인 메이저리거 추신수(클리블랜드)가 불참에 무게를 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WBC에서 대표팀 마운드를 지탱했던 봉중근(LG)과 김광현(SK)까지 부상을 이유로 합류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3명의 에이스급 좌완투수와 중심타자의 동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10구단 창단작업 지연에 따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서 WBC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섰다. 대표팀 구성이 확정되기 전부터 난리다.

2년 연속 삼성의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일궈낸 류중일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이 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드러내왔다. 평소 “프로구단 감독을 하면서 대표팀 감독까지 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언제 또 WBC 감독이 되어볼 수 있겠는가. 국가대표 감독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며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자부심과 달리 ‘류중일호’는 출항 이전부터 표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류 감독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눈치다. 선수협의 WBC 보이콧 언급에 대해 류 감독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그동안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는가. 갈등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